

野 '정책 공세' vs 與 '팩트체크'

야 "일자리 부풀리려 공공기관 알바 채용"...여 "단기 채용 관행" 야 "탈원전 전기요금 부담 커"...여 "세계적 추세...요금 무관"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정무위·외교통일위 등 1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정부의 실정이나 각종 의혹 등을 부각한 반면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성과를 부각하며 역공을 펼쳤다.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5·24 조치 해제' 여부였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감에서 전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제시하며 강 장관을 몰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라며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일자리 정책도 핵심 쟁점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 등의 상임위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에 단기 알바를 채용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으며 일자리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은 단기 채용은 관행적으로 이뤄졌었다고 반격했다.

교육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감 역시 치열했다.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의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격, 정회와

속개가 반복됐다. 법제사법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에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여졌다.

정무위의 금융위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당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금융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과도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 금융권 채용 비리 의혹, 낙하산 인사 논란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행정안전위의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가짜뉴스 엄단 방침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은 정부가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나선 것은 보수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권위주의적 행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포함된 서해상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 구역 설정 문제가 이슈였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가 아니냐며 따졌고 여당 의원들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합의라며 일호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이 결국 전기요금을 부추겨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며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유은혜 인정 못해” 유령 취급한 한국당

교육위 국감 ... 2차례 정회 끝 차관에게만 질의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두고 여야 간의 충돌이 빚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으로 교육수장이 된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 선서까지 반대하고 국감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위 국감은 정회가 두 차례나 반복됐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다시 들어와서도 유 부총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는가 하면 유 부총리를 '유은혜 의원'이나 '유은혜 후보'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광상도 의원은 이날 유 부총리가 증인선서를 하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법법행위가 해결되고 나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옳

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인지 방해발언인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도 간사 간 협의를 요구하며 정회를 선언, 한국당 의원들은 곧바로 퇴장했다. 이어 교육위 국감은 10분 만에 속개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회의가 소개된 지 약 10분 뒤 국감장에 입장했다. 유 부총리의 증인선서와 인사말은 한국당 의원들이 없는 동안 이뤄졌다.

본격적 감사에 들어가서도 유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현행법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장관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당의 공식 입장이 있다"며 박춘란 차관에게 대신 정책을 따져 물었다. /임동욱 기자 tuim@



김영란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장 출석 김영란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왼쪽)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쪽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한국당 조강특위 인선 마무리

자유한국당은 11일 당협위원장 자격 심사를 담당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확정했다.

조강특위는 김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 위원으로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 김성원 조직부총장이, 외부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 전주혜 변호사, 이진곤 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윤리위원장, 강성주 전 포항 MBC 사장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어 조강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전원책 위원장은 당협위원장 심사 기준에 대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 덕목 중 하나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느냐 여부"라면서 "병역·납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가 명색이 보수주의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국감 브리핑

“식물헌재 초래한 국회가 재판 받아야”

박지원 평화당 의원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은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식물 헌재 초래하고, 방치한 국회가 헌재로부터 어떤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법사위원 전원 의결로 교섭단체 3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및 임명 동의안 표결을 조속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각 당에서 추천하는 방동위원이든 헌법재판관이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 인준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만약 하자가 있다면 일단 본회의에 부의해서 표결로 결정하면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생성액 미사용 20%”

송갑석 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16년도 전체 에너지바우처 생성액 487억 3500만원 중 398억 9700만원이 사용되고, 88억 3000만원은 미사용돼 미사용 비율 2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중 이용실적이 낮은 대상은 1인 노인 가구로 146억원 중 112억 7000만 원(77.9%), 도시지역 대상자의 경우 8억 2000만원 중 5억 3000여 만 원(65.2%)만 사용했다. 또 에너지바우처 대상 중 주거환경 등 사용여건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에게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의 신청금액은 8억 8000만원으로 전체 에너지바우처 미집행액의 12.7%에 불과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000만 원(77.9%), 도시지역 대상자의 경우 8억 2000만원 중 5억 3000여 만 원(65.2%)만 사용했다. 또 에너지바우처 대상 중 주거환경 등 사용여건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에게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의 신청금액은 8억 8000만원으로 전체 에너지바우처 미집행액의 12.7%에 불과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경호용 오토바이 구입 신중해야”

정인화 평화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배포한 '최근 10년간 경호·의전용 오토바이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경찰이 구입한 경호·의전용 오토바이는 총 416대로 모두 고가의 외국 제품이었고, 구매예산이 총 95억 30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이 구입한 경호·의전용 오토바이

의 제조사는 할리데이비슨, BMW사이다. 할리데이비슨 245대 구입에 57억원, BMW 171대 구입에 38억3000만원이 소요됐다.

정 의원은 "경찰청은 장비구입에 있어 목적과 용처를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국립예술단 광주 공연 고작 1회 뿐”

최경환 평화당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11일 국립예술단 국감 자료를 통해 올해 5대 국립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합창단·국립발레단·국립현대무용단·국립국단) 공연이 광주에서 고작 한차례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립예술단 453회 공연 중 광주 공연은 1회(국립발레단)에 그쳤다. 전남에서는 국립오페

라단 2회, 국립합창단 1회, 국립발레단 2회 등 5회 열렸다. 반면, 서울·수도권이 371회(82%)로 공연이 집중됐고 대구 5회, 대전 5회, 부산 4회, 전북 2회 등이었다.

최 의원은 "지역 문화 격차와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1652 point

68247581

251649783

130758492

246871280

462810973

576214302

603749802

87711202

J6 10 point

J5 8point

J3 6point

J2 5point

J1 4point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눈모양빌딩

문의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